

공사 창립 52주년 'AI 방송 원년' 선포

2025년 'AI 방송'으로 도약한다

AI 활용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KBS는 이런 변화에 발맞춰 국내 방송사 최초로 2025년을 'AI 방송 원년'으로 선포했다. 박장범 KBS 사장은 3월 4일(화)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열린 공사 창립 52주년 기념식에서 "2025년을 공영방송 KBS의 AI 방송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KBS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엔진 '버티고'와 로보틱스 카메라를 결합한 'KBS-AI PTZ 시스템'이 공사 창립일(3월 3일) 방송된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선보였고, AI 앵커의 라디오뉴스가 같은 날 KBS 라디오 한민족방송 전파를 뒀다. 3월 2일(일) 방송된 KBS 1TV <TV쇼 진품명품> 30주년 기념 특집에선 AI 기술로 만든 영상이 공개됐다.

생성형 AI 애니 <전설의 고향-구미호> 방송

단연 주목되는 건 생성형 AI 기술로 만든 애니메이션 <전설의 고향-구미호>다. KBS 드라마 <전설의 고향>의 유명한 에피소드인 구미호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선보이는 것. AI 기술을 적용해 제작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애니메이션과 차별화된 영상미를 구현했다. <전설의 고향-구미호>는 어린이날인 5월 5일 시청자를 찾아간다.

재난방송 고도화...시청자 체험 서비스도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AI를 활용해 재난 탐지와 방송 능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2023년 지진, 침수발생 시 전국 1만 2천여 대 CCTV로 상황을 자동 탐지해 방송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올해는 산불 등 화재 상황도 AI로 자동 탐

지하도록 시스템을 확장한다. 다양한 시청자 서비스도 제공한다. AI 앵커 시험 방송에 이어 'AI 표준한국어 발음 서비스', 'AI 시각장애인 해설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청자에게 제공한다. 3월 한 달 동안 본사 시청자광장에 설치된 AI 앵커 체험존을 방문하면 본인이 작성한 기사를 AI 앵커가 뉴스로 읽어주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또한, KBS는 선도적으로 'AI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AI 기술을 적용하는 방송 제작 방식과 업무의 범위, 윤리적 문제 등을 포괄하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술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KBS의 AI 기반 멀티캠 영상제작 솔루션 '버티고'를 <한·아세안 뮤직페스티벌>,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 등 한류 프로그램과 글로벌 방송 제작 현장에서 본격 상용화할 계획이다.

I·N·T·E·R·V·I·E·W

<전설의 고향-구미호>를 AI 애니메이션으로 탄생시킨 디지털서비스부 문영미 부장을 만났다.



Q AI를 콘텐츠에 접목시킨 배경은?

생성형 AI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KBS는 IP 제공, 기획 및 방송 편성을 담당하고 전문 외부 기관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AI 관련 기술개발, 애니메이션 제작을 진행했다. AI 기반 제작 전반에 대한 이해도 향상,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비율 충족에 대한 예산 절감,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로 콘텐츠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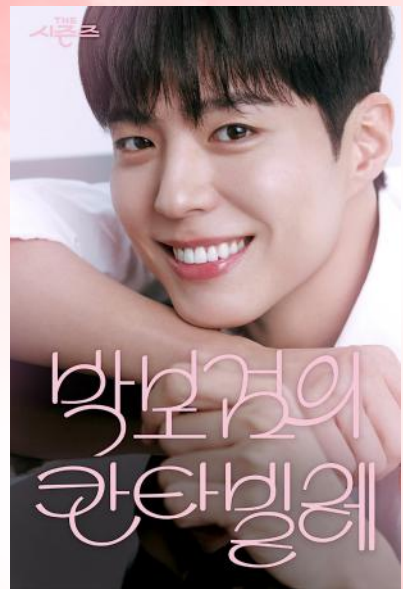
Q AI를 활용해 실제 콘텐츠로 나오기까지 제작 과정은?

대본과 스토리보드 제작에 생성형 AI 모델을 적극 활용했다. 실사 공포물이었던 구미호를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기 위해 대규모 언어생성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했다. 그러면 어린이용에 적합한 어휘와 문장 등이 산출되고, 이를 토대로 대본과 스토리보드를 작성했다. 또 캐릭터 제작과 변형 작업을 위해 이미지 생성 AI 모델을, 배경 음악 제작을 위해 음악 생성 및 효과음 AI 도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Q 향후 제작 계획은?

정부의 AI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최초의 방송용 애니메이션인 <전설의 고향-구미호>를 시작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KBS가 보유한 기존 콘텐츠의 가치를 잘 살리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험 축적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박보검의 칸타빌레> 14일 첫 방송



배우 박보검이 KBS 2TV '더 시즌즈'의 새 진행자로 나선다. 가수가 아닌 배우가 '더 시즌즈' 진행자로 발탁된 건 역대 최초다. 새 시즌 제목은 <박보검의 칸타빌레>. 칸타빌레(cantabile)는 박보검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노래하듯이'라는 뜻의 음악 용어다. <박보검의 칸타빌레>는 화이트데이인 3월 14일(금) 밤 10시 KBS 2TV에서 시청자와 첫 만남을 갖는다.

〈TV쇼 진품명품〉 30년 금자탑 쌓았다

홍주연 아나운서 합류하며 새바람 예고



조선 후기의 대학자 다산 정약용은 전남 강진 유배 시절 아내가 보내준 낚은 치마를 잘라 두 아들에게 교훈이 되는 글을 적은 서첩을 만들었다. 훗날 보물로 지정된 ‘하피첩’이다. 이 귀한 서첩에는 기구한 사연이 있다. 2004년 경기도 수원에서 한 건물주가 폐지 줍는 할머니의 손수레에서 범상치 않은 고문헌을 발견하곤 자신의 폐품과 맞바꾼다. 그리고 2년 뒤, 바로 그 고문헌이 방송에 깜짝 등장한다. KBS의 〈TV쇼 진품명품〉이었다. 폐지 더미에서 건진 보물 ‘하피첩’의 발견은 당시 진품임을 확인한 감정위원조차 흥분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다.

국내 최초의 고미술 감정 프로그램을 표방하며 1995년 3월 5일 첫선을 보인 KBS 1TV 대표 장수 프로그램 〈TV쇼 진품명품〉이 방송 30주년을 맞았다. 민간에 소장된 숨은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해 그 가치를 확인하고, 문화유산 보호 의식을 고취해 후대에 고이 보존하도록 한다는 30년 전 초심을 지키며 무수히 많은 의뢰인과 고미술품을 만났다. 지금까지 감정한 유물만 4천4백여 점에 이른다. 수많은 프로그램이 단명하는 시대에 장장 30년 동안 시청자와 함께해온 비결은 뭘까. 이은미 CP는 2월 27일(목)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3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시청자분들이 의뢰품을 계속 내놓아주시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감정해 주신 감정위원들이 계셨던 덕분 아니었나 한다.”고 말했다.

“〈진품명품〉의 감정가를 어떻게 매깁니까?”

2019년부터 방송을 진행해 온 강승화 아나운서는 〈진품명품〉을 “사람들

을 치료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했다.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현대인은 지쳐 있다.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된 물건들을 다 기억해 드린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영원히 잊지 않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일종의 치료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장 30년 동안 역대 최장수 감정위원으로 활동해온 진동만 감정위원은 “〈진품명품〉의 감정가를 어떻게 매기겠나?”라면서, “〈진품명품〉은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이 녹화일이라고 하면 기운이 솟는다. 벌써 30년이 지났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게 해왔다.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시청자와 같이 오랫동안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30주년 특집에서 1930년대 수집가들 조명

방송 30주년을 맞아 〈TV쇼 진품명품〉이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 3월 3일(일) 방송된 30주년 특집 ‘컬렉터-들 1930 경성’ 편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미술품 수집의 시대로 꼽히는 1930년대 경성에서 활약한 대표적인 미술품 수집가들의 삶과 수집의 역사를 재조명했다. 사람에게 팔자가 있듯 미술품도 어떤 소장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40년 가까이 고미술 업계에 몸담아 온 신소운 감정위원은 〈진품명품〉이 고미술 분야에서 ‘등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고미술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문화를 이끌고 간다는 굉장한 자긍심을 갖게 해줬다. 그래서 30주년을 맞은 감회가 새롭다.”면서, “고미술은 언론에 노출되는 기회 자체가 정말 없다. 귀하다. 〈진품명품〉이 희망의 불빛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홍주연 아나운서 ‘진품 아씨’로 새롭게 합류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새 진행자의 가세다. 최연소 진행자인 홍주연 아나운서가 새롭게 합류해 강승화 아나운서와 함께 더욱 생동감 넘치는 진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화제의 중심이 된 홍주연 아나운서는 “예능에 나오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관심을 받아서 부담도 있었는데, 좋은 순간에 〈진품명품〉과 함께하게 돼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에는 서서히 스며드는 ‘진품 아씨’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강승화 아나운서와 오누이 같은 케미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주연 아나운서는 3월 16일(일) 방송에서 진행자로 첫선을 보인다.

최고 시청률 8.4%…중계 금메달 KBS!

금 16개, 은 15개, 동 14개, 종합 2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들은 훌륭한 성적을 거뒀다. 하얼빈의 뜨거운 환호가 한국의 매서운 한파를 녹였다. 그리고 그 열기의 한가운데 KBS가 있었다.

동계 아시안게임은 2017년 삿포로 대회 이후 코로나19 시기를 보내고 8년 만에 열렸다. 주최국에서 제작한 ‘국제신호’를 받아 각국이 중계해야 하는데 국제신호가 잘 제작될지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SBS는 일찌감치 중계를 포기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을 때, 최민정, 차준환, 김민선 등 각 종목 에이스들이 출전을 확정했다. 2022 베이징 올림픽, 2023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치른 중국이 국제 신호를 제대로 제작한다는 정보도 입수됐다. 박진호 스포츠 중계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사로서 아시안게임을 방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금빛 중계’의 시작이었다.

젊은 감각의 해설자와 캐스터를 발탁, 기용했다. 신예 모태범(스피드스케이팅), 김예림(피겨스케이팅)은 신선함으로 주목받았고, 기존의 진선유(쇼트트랙), 이재호(컬링), 박재민(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스키)은 명불허전이었다. 1, 2 TV 합계 55시간, KBS는 올림픽을 방불케 하는 방송량을 소화했다. 컬링 최고 시청률 8.4%, 피겨 최고 시청률 7.2%. 시청률은 연일 좋은 성적표를 받았고 호평이 쏟아졌다. KBS는 두 채널을 통해 쇼트트랙 같은 인기



종목 외에도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등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한 모든 종목을 가능한 고르게 방송했다. 박진호 부장은 “KBS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했다.”며 “비인기 종목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방송하면 가치가 올라간다는 데 스포츠 중계부 모두가 공감했다.”고 전했다. 급박한 일정에도 제작진의 헌신, 수십 년간 다져진 노하우로 KBS는 최고의 중계를 해냈다. 다시 한번, 스포츠는 KBS!

“대한민국 웃음은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KBS 34기 신입 코미디언 최종 합격

주말 저녁 웃음을 책임질 KBS 새내기 코미디언이 탄생했다. 2월 28일(금) KBS 신입 코미디언 14명이 최종 합격했다. KBS는 1982년 개그 콘테스트를 시작으로 코미디언을 꿈꾸는 수많은 청춘을 무대에 올렸고, 지상파 방송사로는 유일하게 코미디언 공채 선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예능 스타의 등용문...치열했던 선발 과정

1월 13일(월)부터 2월 28일(금)까지 한 달 넘게 진행된 제34기 공채 코미디언 선발엔 총 450명이 지원, 무려 3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 과정은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실기 면접, 최종 면접 순으로 진행됐다. 재능과 끼를 겸비한 인재 영입에 나선 만큼 성별, 나이, 직업을 불문하고 다양한 지원자가 몰렸다. 최연소 지원자는 17세, 최연장자는 55세로 유튜버, 모델, 직업 군인, 요리사, 전직 운동선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들이 부푼 꿈을 안고 KBS의 문을 두드렸다. 심사에 참여한 <개그콘서트> 이재현 PD는 “슬랩스틱 장르부터 스케치 코미디까지 전 세대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코너로 무대를 다채롭게 채울 계획”이라며 “제작 방향성에 부합하고 프로그램에 활력이 될 인물을 고심 끝에 선발했다.”고 말했다. 2023년 최종 면접을 통과한 캐릭터로 같은 해 11월 <개그콘서트> 무대에 데뷔한 33기 코미디언 나현영은 “하루 종일 연구동 회의실에서 코너 준비를 하던 와중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앞으로 후배들과 함께 즐거운 시너지를 내고 싶다.”며 첫 후배를 맞이하는 기쁨을 전했다.

‘KBS 코미디언’으로서 출발점에 선 새내기들을 만났다. 발랄한 에너지로 무대를 가득 채운 이들에게 소감을 물었다. 어릴 때부터 코미디언을

꿈꿨다는 김가은 씨는 “개그콘서트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며 활짝 웃었다. 재수 끝에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안현우 씨는 “2025년 푸른 뱀의 해에 국민 예능 개그콘서트가 시청자에게 스며들도록 열심히 뛰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최종 합격한 코미디언 14명은 앞으로 KBS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한다.

밤 9시 20분 황금 시간대로 돌아온 <개그콘서트>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가 3월 16일(일)부터 매주 일요일 밤 9시 20분에 방송된다. 2023년 11월 부활한 <개그콘서트>는 ‘데프콘 씬 어때요’, ‘소통왕 말자 할매’, ‘심곡 파출소’ 등 다양한 코너가 인기를 얻으면서 1년여 만에 심야 시간대에서 황금 시간대로 자리를 옮긴다.

여세를 몰아 <개그콘서트>는 신규 조화를 주축으로 시청자 사로잡기에 나선다. ‘황해 2025’는 12년 전 시청자에게 큰 웃음을 선사한 ‘황해’를 재해석한 코너로 22기 정범균이 33기 신인 오민우, 장현욱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22기 박성광·송준근이 출연하는 ‘이토록 친절한 연애’도 33기 이수경, 황은비, 서아름이 시너지를 내는 대표 코너다. ‘편집 없는 웃음’으로 화제가 된 <개그콘서트> 유튜브 채널은 3월 4일 기준 구독자 72만 명, 채널 누적 조회수 13억 회를 넘어서며 온라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방송에 담기 어려운 부분이나 아쉽게 방송에서 빠진 코너를 유튜브 무삭제 버전으로 선보이며 매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재현 PD는 “더 많은 분이 편하게 개그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방송 시간을 조정했다.”며 “더 다양하고 참신한 개그로 웃음을 선사하겠다.”고 전했다.



KBS·경상북도·경주시, APEC 성공 개최 협약

KBS 한국방송과 경상북도, 경주시가 올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세 기관은 2월 17일(월) 경북도청에서 협약식을 열어 APEC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특별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KBS는 국가 기간방송사로서 APEC 정상회의의 주요 행사를 중계, 보도하는 등 범국민 인지도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APEC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는 2005년 부산 이후 두 번째다.



노벨문학상 취재기

“기록으로 남긴다는 목표 이뤄 다행”

2월 4일(화) 방송된 KBS 1TV <시사기획 창> 노벨문학상 특별기획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편에 시청자들의 호평이 쏟아졌다. 스웨덴 한림원에서 열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을 KBS 기자로는 처음으로 현지 취재한 유동엽 기자에게 취재 경험담과 소감을 들어본다.

한강의 노벨문학상으로 <시사기획 창>을 제작하겠다고 했을 때, 한강 작가 섭외됐다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강은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는 작가입니다. 신간이 출간될 때만 기자 간담회를 할 뿐 개별 인터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국 작가가 언제 다시 받을지 모르는 노벨문학상의 시상식을, 프로그램이 무엇이든 KBS의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강 없는 한강 특집’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에는, 시상식보다 1주일쯤 앞서 12월 2일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촬영 장소를 둘러보고 스웨덴에 알려진 작가 한강과 한강의 작품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수상자 발표 직후 한강 작가를 인터뷰했던, 스웨덴 방송 진행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휴대전화에 계엄포고령이 선포됐습니다. 지역관리에서 벽안의 상대가 한국의 80년대를 이야기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지 않았다면 저의 귀국도, 한강 작가의 출국조차 어찌 됐을지 모를 일입니다.

한강 작가의 첫 일정은 12월 6일의 공식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따로 인터뷰할 기회가 없으니, 기자회견에서라도 반드시 질문해야 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회견장에 들어올 때부터 마이크를 가

진 사회자만 쳐다봤습니다. 사회자가 한강 작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이 시작되기까지 5분쯤 되는 시간 동안 애처로운 시선을 보낸 덕에 첫 질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많은 기사로 인용된, 3일 전 한국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한강 작가의 답변은 그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한강 작가는 공식 강연과 시상식, 기념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노벨재단은 노벨상 공식 행사의 영상 촬영을 자국 공영방송인 SVT에만 허가합니다. 공식 행사에 참석한 한강 작가의 모습을 우리 카메라로, 아이돌 직캠처럼 찍고 싶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한강 없는 한강 특집’에 촬영마저 제한하는 그들이 야속했지만, 권위 있는 행사를 만들고 그 권위를 자국 공영방송에도 나눠주는 그들의 높은 콧대가 더 부러웠습니다.

한강 작가의 목소리는 느리고 조용합니다. 단편소설 <아홉 개의 이야기>에는 ‘목소리’라는 제목의 장이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의 목소리를 “깊은 밤 종이 위에서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 같다고 말합니다. 작가의 음성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영어로 했던 만찬 연설에서 작가는 “문학을 위한 이상의 의미를 폭력에 맞서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연필 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동엽 <시사기획 창> 기자

시상식 다음 날 열린 국내 언론간담회에서, 노벨상이 앞으로의 작품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질문했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활동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에둘러 했던 질문이었는데 작가는 에두르지 않고 답했습니다. “당연히 여태까지도 글을 썼는데 앞으로 뭔가 글을 쓰는 게 어려워질 이유는 없다.”고 역시 단호한 연필 소리로 말했습니다. 노벨상 덕분에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작품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작가에게 온갖 경로로 요청을 보내놓았으니, 스웨덴에서라도 잠깐 보자는 연락이 올 수도 있다는 기대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작가가 스웨덴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최대한 대화처럼 재구성하고 싶었고, 그렇게 제작한 방송은 여러 사건 사고 속에 예정보다 늦었지만 그래도 전파를 탈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 섭외도 실패하고, 현지 촬영조차 제한적인 상황이었지만 한국의 첫 노벨문학상 시상식을 KBS의 기록으로 남긴다는 목표만큼은 이룬 것 같아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웃음·공감 버무린 가족 코미디 드라마 빌런의 나라 3월 대공개

거칠지만 다정하게, 속 시원하지만 따뜻하게! 2025년 현실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2TV 새 수목드라마 <빌런의 나라>가 막을 올린다. <빌런의 나라>는 오나라, 오유진 두 자매와 가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담은 코미디 드라마다. 배우 오나라가 젊은 시절 화려한 연애사를 뒤로 하고 ‘빠대 있는’ 집안 남자와 결혼해 가족을 장악한 독재 주부, 주인공 ‘오나라’ 역으로 나섰다.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 남편의 속옷 한 장까지 그녀의 허락 없인 지출 불가, 다소 엉뚱하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소유진은 언니에게 질 수 없다며 엉뚱한 매력을 뽐내는 동생 오유진 역을 맡았다. 배우 박영규가 두 자매의 아버지 오영규로, 코믹 연기로 정평이 난 서현철, 송진우가 오씨 일가의 사위 역으로 합세해 기대감을 더한다. 주인공 오나라는 “각 캐릭터마다 숨겨진 필살기가 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고 지켜봐 달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빌런의 나라>는 3월 19일(수) 밤 9시 50분 첫 방송된다.



한국기자상·방송기자대상 석권

KBS가 2024년 한 해 가장 돋보인 보도에 주는 한국기자상과 한국방송기자대상을 잇달아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표 언론사로서 저력을 입증했다.

KBS 원동희·최인영·이원희·김경민·정준희 기사는 2월 21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6회 한국기자상 시상식에서 <캄보디아의 내부자들-불법 리딩방의 비밀>로 기획보도 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자다가 잡혀갔다”...중국 ‘반간첩법’ 우리 국민 첫 구속>을 취재 보도한 김효신·김민정·안용습 기사는 제15회 조계창 국제보도상을 받았다. KBS는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열한 차례 받아 최다 수상 언론사에 등극했다.

앞서 2월 6일(목)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6회 한국방송기자대상 시상식에선 KBS 하누리·오광택 기사가 여성 노숙인의 현실을 다룬 <길에서 여자가 살았다>로 기획보도 부문에서, KBS전주 오정현·안승길·김동균·한문현 기사가 재난 피해자들을 집중 취재한 <84인, 악몽의 기록>으로 지역기획보도 부문에서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